“수해 아픔 훌훌 털고 일어나세요”

불교계 수해 복구 자비 손길 잇달아

조계종복지재단 1천만원 성금
해인사 수륙대재 모연금 쾌척
안양사 신도회 출범 앉고 지원
여성개발원 등 기부행렬 동참







수해복구를 위한 자비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의 구례군 성금 전달, 합천 해인사의 합천군 수해복구 성금 전달, 안양사의 철원군 수해복구 성금 전달 사진.

신성민 · 송지희 기자, 조동제 지사장

50여 일 간 이어졌던 장마와 폭우로 전국이 고통 받고 있는 가운데 불교계가 수해 지역에 성금과 물품 기부에 나섰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상임이사 보인)은 8월 14일 산하시설인 구례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도운)를 방문해 1000만원을 전달했다. 전달식에는 복지재단 상임이사 보인 스님과 센터 운영지원사찰인 화엄사의 총무국장 관문 스님, 사회국장 해덕 스님, 포교국장 우범 스님 등 스님들과 김순호 구례군수, 서동용 국회의원 등이 참석해 이재민들을 위한 빠른 복구와 안정을 기원했다.

상임이사 보인 스님은 “예측하지 못했던 재난으로 삶의 보금자리를 잃은 분들께 위로를 전한다”며 “큰 금액은 아니지만 어려운 상황 속에서 희망을 갖고 이 시기를 극복하기를 염원하며 많은 분들이 십시일반 정성과 마음을 모았다. 아픔을 딛고 힘차게 일어서는 힘이 되길 기원한다”고 강조했다.

기금 전달식에 다문화가족대표로 참석한 이윤우 구례군다문화가족협의회장은 “잠을 자다가 집안으로 물이 들어오기 시작한지 10분도 채 되기 전에 허리까지 물이 차올랐다. 수압 때문에 문도 열리지 않아 창문을 부수고 겨우 탈출했다”며 “집도 가게도 물에 잠겨 모든 것을 버려야만 하는 상황이지만 우리의 상황을 살피고 도와주는 분들이 계셔서 힘을 낼 수 있다”고 말했다.

구례군 김순호 군수는 “관내 어려움에 함께 해주셔서 군민을 대표하여 감사드린다”며 “하루빨리 모든 이들이 가정으로 돌아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계종 제12교구본사 해인사(주지 현응)는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합천 지역의 수해 복구를 위해 성금을 쾌척했다.

해인사는 8월 14일 합천군청을 방문해 전례 없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합천지역의 수해복구를 위하여 특별성금 1000만원을 전달했다. 이날 수해복구 특별성금 전달식에는 해인사 주지 현응 스님을 대신해 총무국장 진각 스님과 문준희 합천군수, 문동구 문화예술과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전달된 해인사의 수해복구 특별성금은 지난 6월 해인사에서 봉행됐던 ‘한국전쟁 70주년 해원과 상생을 위한 해인사 수륙대재’에서 모인 모연금에서 성금을 마련했다. 해인사는 각종 법회 및 불사 모연금의 일부를 지역사회에 공헌하기 위해 기금을 편성하고 있다.

해인사 주지 현응 스님은 “갑작스러운 수해로 인해 고통 받는 합천군민들이 하루 빨리 소중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길 바란다”며 “폭우 뒤 찾아오는 폭염에 수해복구를 진행하는 사람들이 지치지 않기 바란다”고 밝혔다.

철원에 위치한 안양사(주지 범종)와 안양사 신도회는 8월 19일 철원군청을 방문해 지역 수재민을 위한 물품을 지원했다.

안양사 사부대중은 철원군청에 4kg 쌀 총188포(300만원 상당)를 전달했다. 이는 주지 범종 스님 사비 100만원과 신도회 출범행사를 위해 조성됐던 비용을 합친 것으로, 안양사는 신도회 출범 행사를 무기한 연기하며 해당 비용을 수해지역 주민을 위해 사용키로 결정했다.

주지 범종 스님은 “조속한 복구와 일상생활로 복귀를 희망하며 철원지역 피해주민의 복구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자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면서 “함께 해준 신도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불교계 국제구호단체 자비나눔 실천도량 나누우리(이사장 도산)는 8월 19일 전북도청을 방문해 수해복구지원 성금 1000만원을 전달했다.

전북도청 4층 도지사집무실에서 열린 이날 성금 전달식에는 태고종 나누우리 이사장 도산 스님, 태고종 전북종무원장 진성 스님, 송하진 전북도지사, 김동수 사회복지모금회장 등 10여명이 참석했다.

도산 스님은 “코로나 사태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던 중 집중호우로 인해 또다시 많은 국민들이 어려움에 처했다” 며 “작은 금액이지만 어려움에 처한 국민들과 함께 나누는 것이 도리라는 생각에 성금을 기탁하게 됐다” 고 말했다.

송하진 도지사는 “코로나19에 이어 유례없는 긴 장마로 어려운 시기에 불교에서 나눔 정신을 실천해줘 감사하다”면서 “스님들의 자비의 손길이 수해로 피해를 본 모든 도민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불교계 단체들의 기부도 이어졌다. 불교여성개발원(원장 김외숙)은 8월 18일 조계종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원행)에 6일간 자체 모금한 기금 792만원을 전달했으며, 한국스카우트불교연맹이 수탁 운영하는 하동 청소년수련원(원장 성행)은 8월 14일 하동과 구례서 구호활동을 펼치고 있는 해병대 장병들의 활동을 돕기 위해 수련원 방사 및 부대시설을 무료로 제공했다.

불교 자살예방 릴레이 법회 열린다

불교상담개발원 생명살림법회 4개 사찰서 진행

화두 · 걷기명상 등 구성
자살자 유가족 등 참여
자살고위험군도 보살펴

코로나19로 인한 불안, 우울감 확대와 자살충동 등을 막기 위해 불교계와 정부가 생명살림법회를 진행한다.

불교상담개발원(원장 선업)은 8월 30일 서울 조계사, 9월 13일 서울 봉은사, 10월 17일 수원 봉녕사, 11월 15일 부산 범어사에서 생명살림법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위 일정은 코로나19 재확산 추이에 따라 연기될 수 있다.

불교상담개발원이 진행하는 생명살림법회는 문화체육관광부와의 민관협력 자살예방사업 일환으로 불교의 핵심 가르침인 불살생 원리에 따른 생명존중사상을 가르치고, 이를 바탕으로 불교계 자살예방의 필요성 고취와 생명존중에 대한 인식확산을 위해 진행된다.

법회는 고통 받는 이들을 향한 자비심 발현과 살아있는 생명의 고귀함을 찬탄하는 사무량심 법회, 공동체의 일원으로 행복하게 더불어 사는 방법을 훈련하는 화두명상법회, 기도와 염불을 통해 자살 고위험군의 괴롭고 힘든 마음을 위로하는 기도염불 법회, 걷기명상을 포함한 움직임을 통해 삶에 에너지를 불어 넣는 움직임 명상법회 등으로 진행된다.

상담개발원장 선업 스님은 “최근 정부의 적극적인 시책에 맞춰 자살예방 사업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고조되고 있다. 불교계서도 보다 전략적, 체계적 접근이 필요하다”며 “지친 마음에 머무르게 하는 쉼의 직접적인 체험을 통해 삶의 온전한 모습을 찾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불교상담개발원은 명상을 활용한 자살예방프로그램 공모를 진행 중에 있다. 불교상담개발원은 6월 26일 2개의 프로그램을 선정해 우수 장학금을 전달했으며, 9월부터 지난해 우수 프로그램 2편과 올해 선정된 2편의 프로그램 등에 운영비를 지원하고 12월 결과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이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광복 75주년, 선열 기리는 3000 평안등 밝히다

부산 홍법사가 8월 15일 광복 75주년을 기념해 경내에 3000평안등을 밝혔다. 부산 홍법사는 매월 대사회적인 주제로 3000평안등을 잔디마당에 밝혀 새로운 신행문화를 이끌고 있다. 8월 3000평안등은 광복을 맞아 선열들의 의지를 되새기고, 코로나19 종식 및 세계안정, 수해피해 복구를 기원하는 의미로 밝혀졌다.

홍법사 주지 심산 스님은 “등을 밝히며 우리나라 독립을 위해 노력한 독립투사들의 극락왕생을 기원하고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해피해자들과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기도하자”고 당부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범어사, ‘영산회상’으로 백중 회향

9월 5일 설법전서, 어장 동희 스님 시연

범어사가 백중회향법회를 영산회상(靈山會上)의 장으로 마무리한다. 부산 범어사(주지 경선)는 9월 5일 오전 9시 설법전에서 ‘백중지장기도 및 생전예수재 회향법회’를 개최한다.

법회는 상단불공으로 시작해 시식, 방장 지유스님의 법문이 이어진다. 대웅전 앞마당에 마련된 무대에서는 백중 회향을 맞아 초청한 인드라스님과 영산재 어장(魚丈) 동희 스님의 음성공양이 펼쳐진다.

음성공양은 백중을 맞아 법문을 듣고 기도에 임했던 모든 불자들과 영가를 위한 야단법석이자 효에 대한 가르침을 전하는 시간이다. 동희 스님은 비구니 스님으로는 첫 영산재 이수자(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이수자)다. 스님은 영산재 예능보유자인 송암 스님으로부터 1959년 사사했으며 1995년 영산재의 작법을 고증하고 정리한 ‘영산대작법’을 무대에 올려 불교계에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동희 스님은 이날 회향법석에서 ‘회심곡’을 시연한다. 회심곡은 천도 의식인 영산재 대표 음악 가운데 하나이며 효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화청(和請)’이다. 범어사는 “영가의 천도를 위해 기도하고 대중에게는 효의 중요성을 일러주는 깨침의 장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범어사는 코로나 예방도 진행한다. 대중들은 기본적인 발열체크와 인적사항 작성 후 출입가능하며 마스크 착용은 기본이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화성 용주사, 호성전 화재로 전소

경기 화성에 위치한 조계종 제2교구본사 용주사에서 화재가 발생해 경내 호성전이 전소됐다.

용주사에 따르면 사도세자와 정조대왕, 경의황후(혜경궁 홍씨), 효의왕후 김씨(정조의 비)의 위패가 모셔져 있는 호성전에 8월 20일 새벽 1시 경 불이 나 20여분 만에 꺼졌다.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호성전(45.15㎡)이 전소됐고 안에 모셔진 위패가 소실됐다. 다행히 위패는 모조품으로 진품은 용주사 성보박물관 수장고에 보관돼 있었고, 현재는 전시를 위해 외부로 이관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지난 2017년 보물 제1942호로 지정된 대웅보전도 이날 화재로 인한 피해는 없었다.

용주사 관계자는 “경찰과 소방서에서 오늘 중 감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자체적으로는 누전으로 인한 화재로 추정하고 있다”면서 “빠른 시간 내에 복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법장사 · 운가사 성보, 서울시 문화재로

소장 경전 · 불상 등 서울시 지정 고시 잇달아

서울 법장사(주지 퇴휴)와 운가사(주지 여해)가 소장 중인 경전과 불상 등 성보문화재가 서울시 유형문화재로 지정됐다.

서울시는 서울시보를 통해 법장사 소장 〈육경합부〉1책 · 〈선문염송집〉전21권 7책과 운가사 소장 〈법집별행록절요병입사기〉 1책을 서울시 유형문화재로 지정키로 고지했다. 또한 법장사 목조여래상을 서울시 문화재자료로 지정했다.

법장사 소장 〈육경합부〉는 개성 금사사에서 1449년(세종 31년) 목판으로 간행했다. 당시 주로 독송하던 6종의 경전인 〈금강반야바라밀경〉 〈보현행원품〉 〈대불정수릉엄신주〉 〈관세음보살예문〉 〈아미타경〉 〈관세음보살보문품〉을 합집 · 간행한 것으로 효령대군이 발원해 혜돈 스님이 주관해서 간행됐다. 특히 궁중 각수(刻手)인 김계신(金戒信)이 원나라 계통의 금강경변상도를 새긴 것은 주목된다.

법장사 소장 〈선문염송집〉은 전30권이 완전본이나 전21권 7책의 영본상태다. 고려시대 수선사(순천 송광사)에서 보조국사의 뒤를 이어 2세 국사인 혜심(慧諶, 1178~1234)이 역대 선사들의 어록을 모아 편찬한 공안집이다. 고려 고종 때 고려 재조대장경을 조성했던 분사도감에서 보유편으로 간행한 목판본이 저본이다. 조선시대 왕실의 지원을 받아 1566년부터 1568년에 걸쳐서 평안도 순안 법흥사 주지 불현(佛玄)의 주관으로 간행한 것이다. 사찰 중 법장사에 유일하게 소장된 것으로 파악된다.



서울시 유형문화재로 지정된 법장사 선문염송집.

운가사 소장 〈법집별행록절요병입사기〉는 고려 중기 보조국사 지눌(知訥, 1158~1210)이 1209년 당나라 종밀의 저술인 〈법집별행록〉에서 핵심 내용을 선편하고 자신의 견해를 더하여 편찬한 것이다. 1537년 경상도 지리산 신흥사에서 판각하여 인쇄한 목판본 1책으로 운가사 소장본은 간행시기가 비교적 이른 시기이며 매우 드문 판본이다.

신성민 기자

고창 선운사, 석전기념관 상량

30억 예산 투입, 오는 12월 준공예정

고창 선운사(주지 경우)가 대강백이자 한국불교에 큰 자취를 남긴 영호당 정호 대선사의 유지를 기리는 석전기념관(불교문화체험관) 상량식을 봉행했다.

8월 17일 선운사 도솔천 옆 건립공사 현장에서 열린 상량식에는 선운사 주지 경우 스님과 한주 범여, 법현 스님, 총무국장 종고 스님, 재무국장 수찬 스님, 내소사 주지 진성 스님을 비롯한 스님들과 불자 30여 명이 동참했다.

선운사가 2019년 12월부터 건립공사가 진행중인 석전기념관의 공식명칭은 불교문화체험관으로 선운사 도솔천 변 녹차 밭의 중심에 자리잡고 있다.

국비와 지방비, 자부담 등 총 30억 원의 예산으로 건립중인 석전기념관은 전시체험관(319.68㎡), 다목적관(160.38㎡), 화장실(33.48㎡) 등 1,647.68㎡ 규모로 오는 12월 준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이다.

선운사는 그동안 한국불교의 상징성을 지닌 사찰임에도 불구하고 일반인들에게 알릴 수 있는 역사 체험의 공간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석전기념관이 준공하게 되면 한국전통불교와 선 중심도량으로의 홍보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내외국인들에게 전통불교가 살아 숨 쉬는 치유와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지역의 관광자원과 연계해 지역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선운사 스님들이 석전기념관 상량식을 진행하고 있다.

선운사 주지 경우 스님은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상량식에 동참해주신 스님들과 불자님들께 감사드린다” 며 “아무런 사고 없이 공사가 완료되고 석전기념관이 오래도록 빛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한편, 석전 스님 혹은 박한영 스님으로 널리 알려진 영호당 정호 스님은 근현대의 선지식으로 승속을 막론하고 수많은 제자들을 양성하고 배출했다.

선운사는 그동안 석전 스님에 대한 연구와 논문을 발표하고 사료를 수집하는 등 선양사업을 전개해 왔으나 안정적으로 지속적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공간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어왔다.

조동제 전북지사장